

전남도,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AI·재생에너지 산업 ‘탄력’

데이터센터 후보지에 기업도시 해남 ‘솔라시도’ 거론
전남, ‘RE100’ 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가능성도 커져

SK그룹과 오픈AI가 전남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전남도의 AI, 재생에너지 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샘 알트만 오픈AI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AI 인프라 조성과 지역 기반 AI 혁신을 강화하기로 한 데다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위한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이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번 데이터센터 구축 협약에 따라 올 하반기 발표 예정인 정부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후보지가 전남도가 될 가능성도 커졌으며, 남부권의 전력계통 문제 해결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9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SK그룹과 오픈AI가 함께 전남에 구축하기로 한 AI 데이터센터는 GPU(그래픽 메모리장치) 1만여개로 시작할 예정이다. SK그룹이 아마존과 협업 중인 ‘SK AI 데이터센터 울산’의 규모(GPU 6만개)의 6분의 1 수준으로, 전력 용량은 20MW(메가와트) 규모다.

데이터센터의 구체적 입지와 착공 시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난 8월 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비공개 일정으로 헬기콥터를 타고 해남과 영암 일대를 둘러봤다는 점에서 기업도시 ‘솔라시도’ 등이 강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솔라시도는 현재 98MW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추고 있어, AI 데이터센터 운영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또 데이터센터 가동에 필수적인 냉각수도 풍부해 데이터센터 유치의 최적지로 꼽혀왔다. 이미 부지 개발을 마친 솔라시도는 주거, 교육, 레

저 등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수월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오픈AI 전용 데이터센터 유치로 전남은 AI와 재생에너지 산업 확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오픈AI 전용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이 ‘재생에너지 수도’ 조성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일 브리핑을 통해 “오픈AI와의 협력으로 전남 지역에 AI고속도로가 건설돼 산업·공공 분야의 AI 전환 정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올 하반기 공개될 RE100 산업단지 특별법과 그 대상지 선정을 앞두고, 이번 오픈AI 데이터센터 구축 협약으로 전남도가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전남도 안팎의 평가도 나온다.

또 재생에너지 산업이 전력계통 문제로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AI 공룡 기업의 전남 투자를 계기로 한국전력공사가 남부권 계통문제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최근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 대전환과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전략산업을 미래 비전으로 설정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압도적인 추진력과 결합해 이뤄지게 된 역사적인 초대형 투자가 반드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AI인재 양성의 전기를 마련하게 된 전남지



오픈AI 샘 알트만 대표가 지난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접견 중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접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참석했다. /연합뉴스

역 대학교 총장단 명의 환영문을 내고 “이번 투자는 단순한 데이터센터 건립을 넘어 대한민국 AI 산업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양성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남지역 대학들은 교육·연구·혁신 인재 양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전남을 글로벌 AI 인재의 산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등급 핵심 시스템 40개 중 25개 정상화

국정자원 화재로 가동 중단
행정정보시스템 709개로 늘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기존 647개에서 709개로 늘어난 가운데 이 중 1등급 핵심 시스템은 40개로 집계됐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엔탑스) 복구를 통해 전체 시스템 목록이 709개로 늘어났으며, 등급별로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로 집계됐다.

정부 시스템은 업무 영향도, 사용자 수, 파급도 등을 고려해 등급이 매겨진다.

이 가운데 이날 낮 12시 기준 193개 시스템이 복구됐고, 1등급 핵심 시스템 40개 중 25개가 정상화됐다.

김민재 중대본 제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같이 시스템 현황을 전하며 “최근 국정자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m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본원)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목록을 확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전 센터 내 시스템 목록 수가 늘어난 데에는 우체국금융과 공직자통합메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된 것이 영향을 줬다.

또 온라인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에 변화가 생기면서 전체 시스템 목록이 647개에서 709개로 증가했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중대본은 화재와 분진 피해를 본 전산실과 장비 복구도 이어가고 있다.

이달 말까지 도입할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에 앞당겨 도입했다.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 장비의 신규 도입이 이뤄졌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분진 영향을 받았던 8전산실도 연휴기간 내부 분진 제거가 완료돼 전기선로 복구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시스템 복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분진과 화재 피해를 본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 협의와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다른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 차장은 “5층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해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과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해상풍력 핵심 부품 성능 검증 단지 전남에 조성

‘피치·요 베어링’ 내구성 시험
전문 센터 영암 대불산단으로

전남에 해상풍력 핵심 부품 성능을 검증하는 단지가 조성된다.

전남도는 9일 “국내 최초로 해상풍력발전기 핵심 부품인 ‘피치·요 베어링’의 내구성을 시험하는 전문 센터가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선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250억원이 투입되는 해상풍력 피치·요 베어링 시험센터’ 구축 사업은 내년도 정부 예산 안에 국비 150억원이 반영돼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피치 베어링은 바람의 세기에 맞춰 날개(블레이드)의 각도를 정밀하게 조절해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고, 요 베어링은 터빈 전체를 바람 방향으로 돌려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다.

최근 해상풍력 터빈은 15MW급 이상으로 초대형화되는 추세다. 터빈이 커질수록 핵심 부품인 베어링은 더 높은 수준의 내구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는 이를 시험하고 인증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했다.

이 때문에 CS베어링, 신라정밀 등 국내 10여 개 베어링 제조사들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15MW급 이상 시험 인프라를 갖춘 독일, 프랑스 등

유럽으로 가야만 했다. 업계에서는 이로 인한 비용이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해왔다.

시험센터가 문을 열면 국내 기업들은 안방에서 부품 개발부터 시험, 인증까지 한 번에 해결하며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시간과 비용 절감은 물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신소재 및 내구성 연구개발(R&D)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전남도는 이번 시험센터 유치가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지역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자재 생산에서 시험·인증을 거쳐 수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면, 국내의 유수의 연관 기업들이 전남으로 몰려드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특히 현재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과 맞물려 강력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